



오늘의 말씀

만일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일곱 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17장 4절

오늘의 주요 기사

- | | | | | | |
|-----|------------|-----|-------------|----|----------------|
| 2 | 하나님의 선교 특집 | 6 | 유소년숲 겨울성경학교 | 9 | 영유아 주차 안내 |
| 3 | 초고령사회와 교회 | 7 | 문화성경 소개 | 10 | 장애인 선교 지도자 세미나 |
| 4-5 | 고등부 겨울수련회 | 8-9 | 학원선교부 세미나 | 10 | 너나들이부 겨울수련회 |

제6기 주님의교회 세움학당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뉘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_ 잠언 22:6

기간 **3.15 ~ 6.7** (상반기) **9.13~11.22** (하반기) 20주
시간 매주 토요일 **6~8pm**
대상 주님의교회 모든 성도
문의 차승천 목사 (010-7544-3945)

상반기 일정

일정	교육내용	강사	비고
3/15	'기독교교육' 바로알기	장순애 교수	영남신학대
3/22	'성경' 통전적 이해	이대혁 목사	주님의교회
3/29	'다음세대예배 오답노트' 다시쓰기	신형섭 교수	장로회신학대
4/12	'교육과정' 바로알기	박성철 목사	주님의교회
4/19	성경적 재정수업	이현식 장로	주님의교회
4/26	상담가로서의 신앙교사	이상억 교수	장로회신학대
5/10	신앙교사의 성경적 자기관리	채모세 목사	주님의교회
5/17	신앙교사의 예배	이태욱 목사	주님의교회
5/31	신앙교사와 영성	방운주 목사	주님의교회
6/7	신앙교사의 지도력	차승천 목사	주님의교회

세움학당

3월이 다가오며 교회는 새로운 사역들과 모임들로 가득 채워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겨자씨 인도자 수련회를 시작으로 겨자씨가 다시 모입니다. 더 깊은 신앙의 뿌리를 내리기 위한 양육클래스도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주목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움학당'입니다. '세움학당'은 신앙 교사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신앙 교육을 제공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나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 특히 필요한 이 교육은, 신앙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신앙 교육의 기초부터 실천까지 다룬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함께 공부하면서 아이들에게 올바른 신앙의 길을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세움학당'은 단순히 이론적인 교육에 그치지 않고, 실제적인 방법과 사례를 통해 신앙 교육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중점을 둡니다. 신앙을 가르치는 자로서, 더 나아가 우리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자라나도록 돕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되새기며, 교사와 부모가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교사나 부모가 아니더라도 스스로의 신앙을 어떻게 자라게 할 수 있을지 배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신앙 교육의 기초부터 다시 점검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전할 것인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세움학당을 통해 주님의교회가 더욱 견고하고 건강한 신앙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세요.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여러분 모두의 기도와 참여가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로
살아가는 가정 특집 3

말씀으로 세워지는 가정(성경이 가정의 기준이 되다)(시편 119편 105절)

2025년 함줄함울은 올해 교회 표어인 '하나님의 선교로 살아가는 가정'에 맞게 '하나님의 선교로 살아가는 이야기'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지난 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가정'에 이어 이번 호에는 '말씀으로 세워지는 가정'에 대해 나눕니다.

시편 119편 105절과 가정의 의미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편 119:105)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인도하는 빛과 같다는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 등불이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밝혀 줍니다. 특히,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말씀을 중심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축복된 삶을 살아가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세워지는 가정은 성경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가정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가정은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 올바른 길을 걸어가며,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가정의 특징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가정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삼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삼는 가정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경을 기준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가정의 갈등이 있을 때, 세상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해결책을 찾고,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를 말씀 안에서 사랑하고 섬깁니다. 이러한 가정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가정의 두 번째 특징은 성경을 통해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성경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말씀을 따라 자녀를 양육하면, 아이들은 올바른 신앙과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주고, 그들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말씀을 기반으로 한 교육은 자녀들이 삶의 방향을 바르게 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줍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가정의 세 번째 특징은 기도와 말씀 묵상을 실천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이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가정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은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영적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됩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혹은 주기적으로 가족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가정은 더욱 단단한 신앙의 기반 위에 서게 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가정을 세우는 실천 방안

말씀을 기준으로 가정을 세우는 실천 방안 중 첫 번째는 가정 예배의 정착입니다. 가정 예배는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정기적인 예배 시간을 마련하여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가정의 중심이 되도록 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자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가정을 세우는 실천 방안 중 두 번째는 성경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습관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가정 내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찾아보고, 그것을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 간의 갈등이 생겼을 때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거나, 자녀 교육에 있어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뿐 아니라 생각과 행동을 하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수 있도록 성경의 구절을 암송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가정을 세우는 실천 방안 중 세 번째는 지역 사회와 교회를 위한 섬김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가정은 가정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지역 사회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교회 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가정을 세우는 네 번째 실천방안은 말씀을 통해 세대 간 신앙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은 부모의 중요한 책임입니다. 성경을 함께 읽고,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신앙적인 경험을 공유할 때,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결론

말씀으로 세워지는 가정은 성경을 삶의 중심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가정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정을 인도하는 빛이 되어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합니다. 가정이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때, 사랑과 화평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고,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가정으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워지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줄함울



한국기독교공보 | 2월 특집 - 초고령 사회와 교회: 3. 교회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시니어 소리 경청이 초고령사회 목회 대안

올해 주님의교회에 시니어교구가 탄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단지인 한국기독교공보의 초고령 사회와 교회에 대한 특집 기사를 전제합니다. 초고령사회 시대에 교회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함

대한민국이 65세 이상 인구 비율 20%를 넘어서면서 국제연합(UN) 기준상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교회의 목회 환경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교회는 이제 단순한 예배 공동체를 넘어, 초고령 사회에서의 사역 방향을 재정립하고 실천해야 할 시대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

한국교회의 시니어 사역은 여전히 전통적 방식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 많은 교회들이 초고령사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정작 시니어들을 향한 실질적 배려와 사역은 미흡한 실정이다. 시니어들은 단순히 나이가 많은 연령층이 아니라, 사회적 경험과 신앙적 연륜을 바탕으로 교회 공동체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회에서는 시니어를 '교회의 미래와는 상관없는 존재'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교회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초고령사회에서 교회가 지속 가능한 성장과 건강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시니어 친화적 목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시니어 사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예배, 교육, 봉사, 교제 등 교회의 모든 영역에서 시니어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세대 통합 예배, 시니어 특화 소그룹 운영,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등을 도입할 수 있다.

둘째, 세대 간 소통과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많은 교회에서 세대 간 단절이 심화되고 있다. 젊은 목회자들이 부임하면서 기존의 시니어부 사역이 소외되는 현상이 빈번하다. 이는 교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교회는 세대 간 소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젊은 세대와 시니어들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젝트나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세대 간의 연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경청과 존중을 통한 시니어 돌봄 사역이 필요하다. 경청은 상담에 있어 가장 기본이며 가장 어려운 기술이고 상담의 꽃이라고 할 수 있다. 시니어들은 신체적 노화뿐만 아니라, 정서적, 사회적 어려움도 겪는다. 시니어들은 고립되거나 외로움을 종종 느끼게 되는데 경청을 통해 그들의 감정을 존중해 주면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면 그들은 자존감이 높아지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얻게 된다.

교회는 단순히 그들의 필요를 충족하는 차원을 넘어,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경청은 상담의 기본이자, 목회의 핵심 요소이다. 교회 지도자들은 시니어들의 고민을 깊이 이해하고, 그들이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

교회가 시니어 사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행

전략이 필요하다.

교회 형편에 맞는 시니어 맞춤형 예배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전통적인 방식의 예배와 교육이 시니어들에게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시니어 친화적인 예배 형식과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면, 낮 시간대의 시니어 전용 예배, 건강과 영성을 아우르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 등이 있을 수 있다.

또한 교회내 시니어들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시니어들은 교회의 소극적인 수혜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기여자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그들이 교회의 다양한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세대 간 멘토링, 상담, 봉사 활동을 통해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

이밖에도 교회는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시니어들을 위한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지역 병원과 협력하여 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복지 단체와 연계하여 노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시니어 사역은 개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족과 연계하여 진행될 때 더욱 효과적이다. 시니어들의 신앙적, 정서적 안정을 위해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가족 구성원들이 교회의 시니어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교회 안에서 시니어 사역 지도자 과정, 성경 교육 및 상담 리더십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교회 내에서도 리더십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훈련과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초고령사회 속에서 교회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면, 시니어 사역을 단순한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과 연결해야 한다. 시니어들이 교회 내에서 존중받고 역할을 수행할 때, 젊은 세대들도 자연스럽게 교회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다.

특히, 시니어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교회는 다음 세대에 게도 신뢰를 줄 수 있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단순한 교회 성장 전략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적 역할을 회복하는 길이기도 하다.

초고령사회 속에서 한국교회는 시니어 사역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교회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니어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적극적인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세대 간 연대를 강화하고 시니어들의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교회가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갈 때, 초

고령사회에서도 희망을 전하는 공동체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강순심 목사 / 한국교회노인학
교연합회 사무국장



고등부
겨울수련회

너는 참 특별하단다

2월 21일(금)부터 2월 23일(주일)까지 <너는 참 특별하단다>라는 주제로 주님의교회에서 고등부 겨울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많은 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수련회에 참여한 아이들이 신앙의 배움과 성장을 경험하는 수련회가 되었습니다.

학업과 입시 경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사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지' 돌아보는 여유조차 허락되지 않는 청소년들의 모습을 볼 때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어떤 외모를 가졌든, 우리의 성적이 어떠하든, 대학교를 어디에 합격했든 관계없이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을 특별하고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결코 숫자와 결과로 평가받을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가진 존재

이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수련회 당일 2박 3일을 잘 보낼 수 있을지 걱정되는 눈빛을 비추었던 친구들은 이내 레크레이션 시간을 통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찬양과 말씀, 기도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코너 학습과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옆에 있는 형제·자매와의 교제가 얼마나 즐겁고, 서로 위로가 되는 일인지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경험한 하나님과의 만남, 신앙 공동체에서 함께 누린 행복한 추억들이 앞으로 아이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큰 힘과 위로가 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계원 목사 / 고등부

고등부
겨울수련회

특별한 순간들



포스트잇
수련회 후기

수련회를 오기 전까지는 '왜 신청했지? 짐 가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너무 오기 좋았다. 하나님 축복이 되지 않는다.' 는 마음으로 기뻐한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누군가에게 기도를 받는 것이 이렇게나 힘이 큰지 깨닫게 되었고 위로를 받으니 '내가 정말 특별하구나', '세상 모든 사람이 정말 특별하구나' 를 느끼게 되었다. 열심히 준비해주셔서 감사합시다!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시다!

항상 즐거운 복음의 교인! 수련회!! 이번에도 역시 기쁨을 재확인시켰습니다. 수련회 선생님들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덕에 단 한순간 허락 보내지 않을 수 있었을 만큼 감사드립니다! 친하게 다가가신 청년 선생님들, 항상 저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주시는 집사님 선생님들과 목사님, 권도사님까지! 또 무사히 끝까지 있을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보신 하나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타인을 위로하는 법을 알게 되었고, 내 자신이 어떤 부분을 한층 더 알게 되었습니다. 귀한 말씀 나눔에 감사하며, 다음 수련회도 기대합니다!!! -조영민-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은혜받는 시간이었고 이 많은 은혜가 일상에서도 유지되고 이번 수련회의 주제인 '너는 참예변화다' 를 기억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 처음부터 끝까지 즐겁게 수련회를 보낼 수 있었음에 감사
- 좋은 친구들과 함께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

집회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2박 3일 동안 맛있는 밥과 간식도 너무 좋았어요. 앞으로 수련회를积极参加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수련회 잊기 못할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들과 하나님으로부터 위로 받은 귀한 시간 갖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힘들게 재우는 프로그램 과감히 감사드립니다.

첫 고등부 수련회에서 걱정이 많았는데 형들과도 많이 친하게 지냈고 하나님께 한바탕 더 가까워진 것 같아서 뜻깊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께 대해 더욱 잘 알게 되어서 좋았고, 친구들과도 더 친해진 것 같아 좋았습니다. 이번 수련회 준비해주신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할 수 있어서 좋았다. 예배시간에도 아는 찬양들이 많이 나와서 즐거웠다.

예배와 기도를 통해 서로의 영혼과 선생님의 권위로 더 잘 알게되었고 진심으로 즐거운 수련회였다.

방이 따뜻함에 감사
부서어
-부담감 중

- 예배실에서 우리를 위해 특사하신 것 치면, 위로 받은 사랑으로 기쁘게 지냈다.
- 삶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세상의 것 (악마 등)은 멀리, 영혼과 기쁨을 자주 경험하게 된다.
- 설원 전사. 아담은 감사 기로와

이렇게 Chill 하고 여유로운 수련회
방이 따뜻하고 맛있는 음식이 있어서 수련회
최고임다

하나님께서 내가 관 묵하고 있고, 각각 자아의 품에서 24리 해도, 우리 각자의 외침을 들으셨다 생각되고 사랑해 주신다고 깨닫고 기뻐한다

긴 겨울방학 끝에 사들(?)가고 있었는데 다시 돌아와서 하는 것 같아
새로운 선생님들, 친구들과 만날 수 있어서 좋았고 미미한으로 방이 따뜻해서 너무 좋았습다
말씀이 준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로미' 활동이 신기하고 재미있었다.
광음이 은혜로웠다.
레크리에이션, 코너활동이 정말 재미있었다.

이번 겨울수련회! 너무나 재미있었어요!
*첫날 레크리에이션도 너무 즐거웠고 둘째날 활동들도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특히 저는 저녁 집회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고 기도문을 읽고 설교를 들으며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항상 제 옆에서 저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다고 만들어진 '특별한' 사랑받은 자들이라고 깨달았어요.
이번 수련회를 위해 노력하고 헌신하신 선생님 모두 정말 멋진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들었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비전과 고등부, 모든 사람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해요! ~
-고영, 최영리-

말씀이 ~~재미~~ 재밌는 것들이 많다. 이것을 마음에 기록해두고 다 읽는다는 생각으로 한다.

수련회 때 바빠서 참석하지 못했던 권도사님
이번 수련회 때 참석했는데 그 권도사 포함해서 모든 권도사들이 함께 어우러져 즐거운 것에서 더 특별한 수련회였던 것 같다.
서 전도사로서 의미있었던 수련회였던 것 같다
-최영리:-

생각보다 신나고 재밌었다. -조영민-(12)
서로 위로하고 사랑해주고
친구들을 많이 사랑하고 친하게 지냈다.

수련회를 위해 주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박 3일 잘 지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할 수 없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선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새벽이후에는 조 친구와 주님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받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여름수련회와 이번부터 고등부 기도회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2025.2.23 고영민

하나님께 위로 받고
옆 자제들에게 위로를 건네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

이번 수련회를 통해 바쁘다는 핑계로 멀리했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았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늘 내 곁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나는 하나님께 존재만으로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 깨닫게 되어 좋았다.

유소년
겨울성경학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

2월 15일(토)부터 16일(주일)까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는 "Friend Messenger(롬 10:15)"라는 주제로 겨울성경학교를 진행했습니다. 아이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배우며 복음의 기쁨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찬양과 말씀으로 시작하고,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친구들에게 나눔을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함께 기도하며 친구와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팀별 레크리에이션 시간은 협력하며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겨울성경학교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지 않으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겨울성경학교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Friend Messenger"로 살아가기를 다짐했습니다.

어린이영어예배(EM)는 1월 18일(토), 1월 19(주일)과 1월 22일(수)에 "Jesus, the Ultimate Eternal Tabernacle"(John 1:14)을 주제로 세계성막복음센터와 무봉산 눈썰매장을 방문했습니다. 세계성막복음센터에서는 성막의 각 부분을 직접 보고 체험하며 구약의 예배와 예수님의 사역을 연결해 배웠습니다. 아이들은 예수님께서 영원한 성막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진리를 깊이 깨닫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성소와 지성소를 설명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성막 체험 후에는 무봉산 눈썰매장으로 이동해 친구들과 함께 신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유소년송 어린이들이 배운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자라가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훈 목사 / 유소년송 총괄

유소년
겨울성경학교

아이들의 모든 모습이 복음

저는 고2 겨울방학에 친구를 따라 그저 아이들을 좋아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유년부에 가게 되었습니다. 유년부 선생님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매주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팀으로 섬기다 보니 하나님께서 유년부 선생님에 대한 마음을 주셨고, 선생님을 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대화를 하고 예배를 드리다보니 '내가 성경말씀에 대해 이정도 밖에 몰랐나?'하는 생각이 들었고 아이들에게 좋은 선생님이 되기 위해 성경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아이들과 겨울성경학교를 함께 하면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과의 만남이 어색할 수도, 낯설 수도 있는데 함께 열심히 활동하며 찬양하는 모습, 집중해서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는 모습, 서로 먹을 것을 나눠주고, 서로 대화를 통해 의견을 모아 배려하고 양보하며 힘을 합쳐 미션을 수행하고, 그 속에서 울고 웃는 모습들, 모두가 하나 되어 꾸민 현수막, 작은 선물에 기뻐하고 웃는 이 모든 모습들이 저에게는 복음이었습니다.

겨울성경학교를 통해 즐겁고 기쁜 추억을 선물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달자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김에서 선생님 / 유년부



홍보출판부

성지의 위치와 사진을 보여주는 성경

우리가 사는 세상은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고(Digital Transformation, DX), 디지털에서 인공지능으로 바뀌는(AI Transformation, AX) 세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은 변함이 없지만 전달하는 도구는 시대의 변화와 함께 다양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GPS가 연결된 PDF 문화성경을 소개하고 공유하려고 합니다.

한국 최초의 대학이자 기독교 대학인 숭실대학교가 2007년 개교 110주년 기념사업으로 문화성경책을 출판했습니다. 그때 저는 숭실대학교 기독교학대학원 문화학과 교수로서 문화성경 편찬 대표로 일을 했습니다. 문화성경책은 대한성서공회의 개역개정 한글성경 본문 하단에 성지의 사진과 문화자료를 통해 해설한 성경입니다. 책은 더이상 출판하지 않고 일부 남은 책은 숭실대학교나 쿠팡을 통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하고 공유하려는 것은 책이 아니라, 휴대폰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는 PDF 문화성경으로서 성경본문을 읽으면서 성경본문에 있는 지명을 누르면 위치와 사진이 구글지도에서 열리도록 GPS가 연결되어 있는 온라인 성경입니다. 성지 현지에서는 구글지도가 열리면서 네비게이션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성서문화를 연구하기 위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성지와 유물이 보관되어 있는 세계 여러 박물관을 방문해서 자료를 모아 문화성경책을 편찬했습니다. 종이책을 출판한 뒤에는 성경을 PDF파일로 만들어서 성경지명의 위치와 사진이 구글지도와 연결되어 휴대폰으로 볼 수 있게 했습니다. GPS 문화성경은 온라인에서 업데이트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GPS와 해설을 업데이트 했습니다.

대한성서공회와 개역개정 한글성경 본문 사용에 대한 약속 때문에 PDF 성경을 무료로 나누어 드릴 수는 없지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열람하는 것은 허락을 받았습니다.

구글지도에 있는 사진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구글에 올린 사진들도 있지만 특별히 문화성경을 위해 제가 올린 많은 사진들이 있고 그 중에는 드론으로 촬영한 360도 사진들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단순한 위치와 사진만 열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박물관 자료가 PDF 성경에서 열리도록 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역대하 32장 하단에는 라기스 성과 히스기야 터널 사진을 넣고 설명에 있는 이스라엘 박물관 360도 사진 링크를 누르면 히스기야 왕때 앗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를 침략해서 라기스 성을 점령하고 라기스 사람들을 앗수르에 포로로 잡아가는 이스라엘 박물관에 전시된 벽화의 모습을 360도로 돌려가며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터널 사진 옆에 VR영상을 누르면 533미터의 히스기야 터널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며 볼 수 있는

풀 영상이 VR로 열리도록 했습니다. VR영상이기 때문에 돌리면서 초점을 잘 맞추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박물관 자료는 촬영이 금지되어 있지만 이스라엘 정부 관광청의 초청과 배려로 촬영했습니다. 히스기야 터널은 일반 관광객들이 입장하기 전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없는 가운데서 촬영하도록 배려를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산에 있는 팔복교회의 외관과 내부 모습을 360도 사진으로 돌려가며 볼 수 있으며 팔복산 전경을 드론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기존 로마 순례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던 사도행전 28장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는 중에 로마에서 마중 나온 성도들을 만났던 압비오 광장(Forum Appii)과 삼관(Tres Tabernae), 옥중서신(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을 기록했던 셋집의 위치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GPS 문화성경이 성경을 읽는 성도들에게 성경 지명의 위치와 문화배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자료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아래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하면 홈페이지가 열립니다. 홈페이지에서 PDF 문화성경을 누르면 성경 목차가 열립니다. 화면에서 글자가 작게 보이면 손가락으로 확대하시면 됩니다. QR 코드로 열리는 홈페이지에서 더 보기 버튼(휴대폰에 따라 줄 세 개 또는 화살표 등)을 누르고 홈화면에 바로가기를 하면 홈화면에 아이콘이 생깁니다. 휴대폰에 어떤 내용도 설치되는 것이 없고 바로가기 아이콘만 생깁니다.



PDF 문화성경이 성서지리와 성서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우 / 2교구

학원선교부
2025 학원선교 교육세미나

학원선교부가 만나게 될 정신학원 아이들을 위해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청소년들은 자신이 불행한 이유를 어떠한 조건에서 찾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상처받은 사람의 유일한 치료제는 '사랑'입니다. 이런 점에서 영원한 사랑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심을 다시 기억하며 학원선교부는 2월13일, 20일 두 차례에 걸쳐 사랑의 연결자로 세워진 어머니들을 모시고 '위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13일은 고려대 심리학과 명예교수님이신 한성열 교수님을 모시고 상담학적 관점에서 어머니 자신을 돌아보고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를 진정된 상담가이신 예수님을 바탕으로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일은 청소년사역원 담당 방윤주 목사님을 모시고 진정한 위로는 위로부터 옴을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 본문을 중심으로 어머니들과 청소년들을 돌아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마음을 어떻게 열 수 있을지 몇 가지 소그룹 진행 팁을 배우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학원선교부가 만나게 될 귀한 정신학원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길 세미나를 마치며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합니다.

방윤주 목사 / 청소년 사역원

2025 학원선교 교육 세미나

2월 13일(목)
주제: 위로의 메신저로서 청소년과 자기 이해
(2부 순서: 감사와 Q&A 시간 및 교제 시간)

2월 20일(목)
주제: 위로는 위로부터 옵니다
(2부 순서: 아이스브레이크 진행 팁 및 소개 시간)

2/13 강사: 한성열 교수
-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명예교수
- 미국 시카고 대학교 심리학박사
- 상담사역 아카데미 영상 원장

2/20 강사: 방윤주 목사
- 주님의교회 청소년을 돌보는 목사
-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상담학과 PH.D
- 장로회신학대학교 상담학 교수

장소: 주님의교회 1층 소예배실(영·월·수·목)
시간: 2/13, 2/20 (목) 오전 10시30분~오후 12시30분



학원선교부
2025 학원선교 교육세미나

아이들과 함께 울고 웃는 기쁨의 자리로

2025년 학원선교부 교육 세미나의 대주제는 '위로'입니다. 한성열 교수님을 모신 1차 세미나는 '위로의 메신저로서 청소년과 자기 이해'라는 주제로 학원선교의 준비단계로서 마음가짐을 다지는 단계였다면 방윤주 목사님의 '위로는 위로부터 옵니다'라는 주제의 2차 세미나는 학원선교의 실천편으로서의 실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단계로 2회의 세미나로 학원 선교부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차 세미나 한성열 교수님의 이야기는 실제 학교에서 경험하고 연구하셨던 이야기로 유머러스하고 재치있는 입담에 어떻게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재미있었지만 어른이 되어가며 깨닫지 못했던 나의 가장 큰 잘못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바로 나의 입술 '말'. 걱정한다는 이유로, 위로한다는 이유로 참 여러 가지 이유로 어설픈 많은 조언과 쓸데없는 말들을 하며 살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나의 자녀와 만나는 청소년들에게 내가 더 많이 살았으니 나의 지혜를 자랑이라도 하는 듯 나의 생각을 강요하지는 않았는지 반성하게 됩니다. 교수님은 상담은 '경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경청은 나의 생각이 아닌 예수님의 마음으로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마태복음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 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_마태복음 11:28,29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아이들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아이들에게 준 잠재력과 독립된 삶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어머니가 되는 마음을 다져봅니다. 마음가짐을 가지긴 했는데 어떻게 경청을 할 것에 대한 실행편을 2차 세미나 방윤주 목사님과 손혜주 강사님을 통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크리스찬이라고 말은 하면서 무슨 일든 세상적인 방법으로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어떤 도구들이 더 효과적일까? 사실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이끄심으로만 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항상 세상의 관심을 끄는 것에 휘둘리고 말았던 것은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도구는 기도이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했어야 하는데 기도는 항상 뒷전이었음을 회개합니다. 방윤주 목사님의 호소하는 듯한 기도는 이 땅에서 얼마나 기도가 큰 힘이 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따라가는 방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뜨거운 기도회 후 손혜주 강사님의 참여 수업은 실질적으로 학원선교의 현장에서 아이들과 가까워지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는데 결국 아이들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려면 소통을 해야 하고 소통하기 위해 친해지기 위한 방법은 참여였습니다. 같이 놀이하고 같이 이야기하기. 주입식 교육에 익숙한 세대라서 함께 참여하는 활동에는 익숙하지 않았던 터라 학원선교의 시간이 단순히 봉사로서의 자리가 아니라 함께해야 진정한 위로와 기쁨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보았습니다.

학원선교는 사실 아이들을 위로해주러 가는 단순한 봉사의 자리가 아니라 내가 위로받는 자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경청을 하기 위해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며 아이들과 함께 울고 웃는 기쁨의 자리입니다.

유길정 집사 / 학원선교부

학원선교부
2025 학원선교 교육세미나

복음의 열매 맺기를

이번 학원선교부 세미나에서는 구체적으로 정신학원 아이들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지혜와 뜨거운 기도로 우리들의 심령을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세미나에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고 3월부터 시작될 학원선교 수업에서 만나게 될 정신학원의 모든 영혼들이 사랑어머니, 기도어머니들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학원선교를 섬기는 사랑, 기도 어머니들이 성령으로 하나되서 하나님께 엮드리고 기

도하게 하셔서 정신학원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이 열매맺게 하셔서 중,고등부에 많은 아이들이 나와 함께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맡겨주신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천부적인 잠재력이 뭔지 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한성렬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고 공감해줄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과 입술의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달하는 복음의 통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영선** 권사 / 학원선교부

주차안내부
영유아주차

빨간색 컵은 36개월까지

최근 도심 내 주차 공간 부족 문제가 심화되면서 주차장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주차가 어려운 계층, 특히 영유아를 동반한 운전자들에 대한 배려는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대형마트, 병원, 공공시설 등 일부 공간에서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 차량 전용 주차구역’이 마련되어 있지만, 아직 많은 주차장에서 이러한 배려가 미흡합니다.

영유아(특히 36개월 이하의 아기)를 동반한 부모들은 차량을 이용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기를 안고 차에서 내리거나 유모차를 꺼내야 하는 과정에서 물리적인 부담이 큼니다. 아기 한 명에 기저귀와 분유 등 아기를 돌보기 위한 물품이 들어 있는 가방까지 하면 건물과 멀리 주차할 경우 부모님들의 이동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건물과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하면 다니는 차들로 인해 안전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 가까운 곳에 ‘36개월 이하 영유아 동반 차량 전용 주차구역’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은 단순한 편의 제공이 아니라, 안전과 효율성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주님의교회는 건물 운동장 측 일부 공간을 ‘영유아 동반 차량 전용 주차구역’으로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나 영유아를 동반하지 않는 차들이 주차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를 구분하고자 유아숲 주관으로 주차증을 만들어 주차증이 있는 차량에 한해 영유아 동반 차량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 주차증이 눈에 잘 띄지 않아 주차안내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주차안내부에서는 빨간색 컵을 이용해 영유아 동반 차량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빨간색 컵을 차량 지붕에 부착한 차량은 운동장에서 건물과 가까운 쪽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협조로 많은 영유아 동반 가정이 보다 안전하게 아기를 데리고 교회에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기를 내리고 태우는 과정도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영유아 부모님들의 만족도가 높고 아기를 데리고 교회에 오는 것에 대한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영유아 동반 차량의 숫자도 많이 늘었지만 영유아 동반 차량 전용 주차구역을 계속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게다가 36개월이 지나면 반납해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해 계속 빨간색 컵을 이용하여 영유아 동반 차량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영유아 동반 차량 전용 주차구역은 36개월 이하 아기들을 위한 구역이므로 36개월이 지나면 어린 동생들을 위해 빨간색 컵은 자발적으로 반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함



비전트립 일정 및 모집

2025 주님의교회 비전트립

 **키르기스스탄** (한사람) **6.10(화)~18(수)** (윤바나바) **9.23(화)~30(화)**

 **베트남** (최화평)(이믿음) **7.28(월)~8.2(토)**

 **필리핀** (유성훈) **7.23(수)~28(월)**
(송지형) **8.7(목)~12(화)**

 **코스타리카** (금상호)
5.19(월)~27(화)

• **모집** | 3.2(주일) 08:00~13:30 • **문의** | 이재홍 안수집사(010-7738-4455)

사랑나무부
장애인 선교 지도자
세미나

작은 자와 약한 자가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교회 사랑나무 선생님 11분과 학부모 한 분 그리고 두 분의 장로님 총 14명이 2월 8일 사랑의교회 갱신 공동체에서 개최된 제29회 장애인 선교 지도자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작은 자와 약한 자가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김해용 목사님의 주제 강의가 있었고 30년 장애인 학교 교사로 근무하신 차상신 부장님의 실전 강의와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들은 응용 행동 분석(Applied Behavior Analysis) 연구소를 운영하시는 윤성문 소장님의 ‘발달장애인의 문제 행동 이해와 예방’에 관한 이론교육과 실제 사례 발표를 통해 알찬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점심시간을 빼고 열강이 이어졌고 강의 내내 한눈을 팔지 않고 집중하였는데 이는 어떻게 하면 우리 사랑나무 친구들과 더 소통하고 그들을 제대로 돌볼 수 있는지를 하나라도 더 배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맨 앞줄에서 강의를 들었는데 저의 왼편에는 주님의교회에서 사랑나무를 처음 만드시고 계속 섬기고 계신 신형섭 장로님이 오른쪽에는 구제복지위원회의 김용규 장로님이 계셔서 탄전을 피울 수 없었고 교회 시설이 노후되어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추위 탓에 졸 수도 없었습니다.

매년 발달장애 세미나를 통해 배운 바가 많았지만 올해 역시 강의가 어찌나 알차고 좋던지 집에 돌아갈 때는 내가 영적으로 한 뼘은 성장한 것 같아 뿌듯하였고 오늘 배운 것을 사랑나무 친구들에게 적용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설 습니다. 그리고 사랑나무 부장으로서 두 가지를 마음을 품게 되었는데 첫째는 이 좋은 강의를 우리 주님의교회 성도

님들에게도 소개를 시켜드려야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두 번째는 연초에 개최되는 장애인 세미나가 매년 장소를 구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저희 주님의교회 지하 중예배실과 식당이 떠올랐습니다. 참석인원 300여 명이 강의를 듣고 식사를 해야 하는데 우리 교회만큼 좋은 조건을 갖춘 교회는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라고 자부하는 우리 교회가 발달장애인들을 위해 애쓰시는 선생님들을 위해 교육장소를 제공한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욕심을 부린다면 현재 지하에 있는 사랑나무 예배 장소가 밝고 환기가 잘 되는 일층으로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마 저의 이런 생각을 들으시면 과한 욕심이라며 혀를 차실 분도 계시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달리 작은 자와 약한 자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믿기에 이를 위해 기도하며 비전을 품고 주님께 매달릴 작정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언젠가는 이루어질거라 믿습니다.

여동생과 딸이 모두 자폐를 앓고 있다고 고백한 강사님께서 주님께 이런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왜 발달장애인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나요?’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 답을 구하고 싶으시면 사랑나무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저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저 나름대로의 답을 찾았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염인호 안수집사 / 사랑나무부 부장

너나들이부
겨울수련회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너나들이부는 멘티(탈북청년들)와 멘토(교사)들이 하나가 되어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사랑공동체입니다. 이번 겨울수련회를 통해서 더욱 더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계기가 되어 잠깐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너나들이부 겨울수련회는 2월 15일(토)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시편 119:171)이라는 주제로 교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하게 접근하는 성경퀴즈대회, 서로에 대해 더욱 깊이 알아가는 김은선 목사님의 MBTI 특강, “The Mission”이라는 명작을 시청하면서 선교에 대한 생각과 감상평을 나누는 등 귀하고 복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녁 집회에서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리아처럼 나만의 향유옥합을 깨뜨리길 도전하며 부서와 청년들을 위해 서로 뜨겁게 기도함으로 모든 프로그램을 마쳤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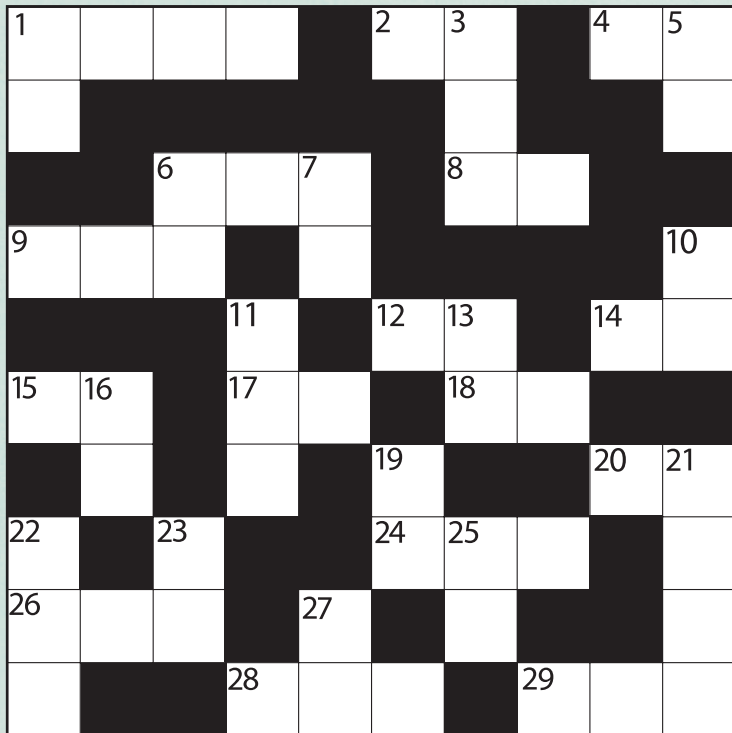
당일로 교회에서 진행되어 아쉽기도 하였지만, 멘토들은 멘티들을 자녀처럼 사랑과 정성으로 위해주고 멘티들은 멘토들을 부모님처럼 존경하고 사랑함을 확인하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정상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기도와 후원으로 중보해주신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너나들이부 청년들과 부서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차승천 목사 / 너나들이부

주제에 맞게 말씀을 묵상하는 공동체 성경읽기, 성경의 내용들을 유쾌

가족과 함께 풀어보는 성경 십자말 풀이 말라기 편

이번 호는 <말라기> 편입니다. 선지자 말라기가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소선지서 가운데 마지막 책이며, 구약의 마지막 책이기도 합니다. 학자들은 기원전 450~430년 무렵 기록되었다고 추정합니다. 말라기 이후 약 4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성경을 꼼꼼히 읽으면 찾으실 수 있도록 힌트에 해당 성경 구절을 안내했습니다. 정답은 다음 호에 발표합니다.



가로 힌트

1. 다른 신앙과 풍습을 갖고 있는 민족. 구약에선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거나, 우상 숭배를 하는 민족을 이렇게 불렀다. (말 1:11)
2. 두려워하며 공경함. "그가 나를 ○○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말 2:5)
4. 건방지며 잘난 체함. '검손'의 상대어이다. (말 3:15)
6. 자신을 낳아 준 아버지 중 남자를 부르는 말. 작가 신경숙의 소설 가운데 "○○○에게 갔었어"라는 작품이 있다. (말 4:6)
8. 부정한 성적 관계를 부르는 말. 십계명에 이것을 하지 말라는 내용이 있다. (말 3:5)
9. 여러 마리의 늑대를 달리 부르는 말. 갯과의 포유류로 대개 떼를 지어 다닌다. (말 1:3)
12. 몹시 알뜰고 쾌심한 것.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금지한 여러 행위들을 뜻한다. (말 2:11)
14. 어떤 사람이나 가족의 먼 선조.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이것이다. (말 2:10)
15. 생물이 살아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생물에게 이것을 주셨다. (말 2:5)
17. 빛줄기. 영화 <스타워즈> 시리즈에는 이것으로 만든 검도 등장한다. (말 4:2)
18. 말로 맺은 약속.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약속을 말한다. (말 2:4)
20. 나무의 원줄기에서 뻗어나온 줄기. 같은 이름의 열매채소도 있는데, 한국에선 대개 찢서 무쳐먹는다. (말 4:1)
24. 제사 의식의 책임자.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하는 역할을 맡았다. (말 1:6)
26. 앞의 말과 달리.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말 3:8)
28.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수입의 10분의 1을 구분한 것. 이스라엘 백성은 땅의 산물과 소와 양의 이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말 3:10)
29. 구약의 마지막 책. 이 책을 기록한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다. (말 1:1)

세로 힌트

1. 다른 사물이나 존재와 구분하기 위해 붙인 말. 사람은 누구나 각각 이것이 있다. (말 2:2)
3. 한국의 전통 가옥에서 주로 소를 들어 키우기 위해 설치한 공간. 행랑채 옆이나 대문 옆, 또는 부엌에 붙여 두었다. (말 4:2)
5. 천사와 같은 천상의 여러 존재를 뜻하는 말. 보통 '○○'의 여호와와 같이 쓰인다. (말 1:4)
6. 어떤 사람의 남자 자식. '딸'의 상대어이다. (말 3:17)
7. 특정한 성격이나 규모에 따라 구분된 지리적 공간. 도시나 농촌처럼 성격에 따라 구분하기도 하고, 역사와 문화에 따라 더 큰 규모를 뜻하기도 한다. (말 1:4)
10. 언제나. 늘. (말 2:4)
11. 금속을 제련하기 위해 녹이는 큰 용기. 제철소 같은 곳에 설치되어 있다. (말 4:1)
13. 어떤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하는 말. 또는 그렇게 증거가 되는 말을 뜻하기도 한다. (말 3:5)
16.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내리는 지시. 주로 군대에서 쓰는 용어이다. (말 2:1)
19. 한 아버지의 남자 자식들. 여자의 경우는 '자매'라고 한다. (말 2:10)
21. 벼나 밀의 줄기가 말라 부서져 흩어져 있는 것. '짚'에서 나온 말이다. (말 4:1)
22.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 중이거나 자신의 고향이 아닌 곳을 떠도는 사람. 성경에서는 천국을 소망하며 이 세상을 사는 성도를 이것으로 보았다. (말 3:5)
23. 셋에서 둘을 뺀 수. 여기에 넷을 더하면 다섯이 된다. (말 1:9)
25. 애뜻하게 생각하며 그리워하는 것. 대개 연인 사이, 또는 존경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정서적 상태를 말한다. (말 3:1)
27. 일반적으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나무 열매. 사과, 배, 감, 포도 등을 두루 부르는 말이다. (말 1:12)

주님의교회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생 모집

일시

3.10(월)~5.21(수) 매주 목요일 동영상강의 업로드

대상

호스피스에 관심있는 모든 교우

교육방법

온라인교육

교육비

150,000원 (교재비 포함)
주님의교회 등록교인 (본인부담 50,000원)

등록문의

이미경 부장 010-2395-4293
김영란 회계 010-7512-2616

안내사항

1. 교육수료 후 호스피스 병동이나 가정호스피스
봉사가 가능함
2. [대면교육] 3월 10일 개강식 / 5월 21일(수) 수료식은
대면으로 진행
장소: 각당복지재단 강당(서울 종로구 경희궁1길 29)
3. [특강] 4월 24일(목) 오후2:00~4:00 발반사요법
대면으로 진행 (참여 필수)

2025 봄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 133:1

겨자씨 인도자
수련회

주제: 기도 위에 꿈을 싣고

3/7(금) 8PM - 8(토) 12PM
소망수양관 (경기도 광주)

강사: 백용현 목사
대전 한빛감리교회 담임목사

학력: 감리교신학대학교 / 전주대학교 국제선교신학대학원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목회지도과정
학력: 세계기독교선도 대표 / 대전 CTS중앙아시아
감리교신학대학교 이사 / 대전 CBS생명살림이사
CTS중앙회 간행
저서: 기도학교 - 50가지 기도의 영적 훈련
(두란노) 외 다수

주님의교회

상반기

1교구(시니어)
화요모임

3.11~6.24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오후 2시 (점심식사 포함)

올해부터 새롭게 세워진 1교구는 시니어 세대(65세 이상)를
위한 특별한 교구입니다. 우리교회에서 앞서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신 시니어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의 신앙과 삶을 나누는
귀한 공동체가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상·하반기에
정기적인 [화요모임]으로 같이 하나님께 기쁘게 예배
드리고, 거자씨모임 및 취미활동으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구분	시간	내용	비고
정기 활동	10:00 ~ 10:20	건강 체조	
	10:20 ~ 11:00	예배	
	11:00 ~ 12:00	거자씨 모임	
	12:00 ~ 13:00	점심 식사	
	13:00 ~ 14:00	취미 활동	선택
특별 활동	상반기 1회	봄 나눔회	
	상반기 2회	특강 및 연주회	

문의
정원영 안수집사
010-5339-6464
(시니어교구사역부 부장)

주님의교회 1교구
(시니어교구)

2025 봄학기

양육클래스

2025.3.13(목) ~ 5.18(주일)

주일 오후 2:30

바울과 함께 걷는 성지순례

윤경수 목사, 이대혁 목사 010-9006-9129
* 4주간 진행(4/6 ~ 4/27)

문화와 기독교세계관

주태화 교수 010-5418-1771

목요일 오전 10:30 / 오후 2:00

성경적 재정교육

한국형자기아카데미 온라인(zoom) 진행
* 문의: 배윤환 목사 (010-3138-3262)

예수님 이야기, 네 배 더 재밌게 읽기

윤경수 목사 010-9407-3709 오후 2시

금요일 오전 10:30 / 저녁 8시

천로역정 플러스(30명 한팀)

박민규 목사 010-8790-9690

세계 교회사 개관

채모세 목사 010-9195-3757

에스겔, 그가 선포한 비전과 희망

이태욱 목사 010-7233-6796

금요일에 시간 어떻게?

배윤환 목사 010-3138-3262 저녁 8시

토요일 오전 9:30

영성훈련1

최대형 장로 010-3814-1353

YouTube 온라인

레위기, 은혜의 산을 넘어

박준범 목사 010-7164-5324

일곱 단어로 읽는 구약

조연상 목사 010-5465-3497

신청기간

2/23(주일) - 3/9(주일)

신청방법

교회 홈페이지 → 양육과 훈련 → 양육 → '양육클래스' 클릭 후 신청서 작성

문의

배윤환 목사(010-3138-3262)

2025년 수요일에
시리즈 설교 3월

제구시절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바디니 하사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마태복음 27:46

Lent

사순절 동찰(洞察)

3/12 마 27:46 버림받으신 이유
3/19 시 107:1 속량받은 자가 말하는 법
3/26 갈 5:24 십자가에 못 박아라

3/12, 19, 26 수요일 7:20 PM 대예배실 • 설교: 이대혁 목사

2025 상반기 교육일정

가정사역원

꿈꾸는 3막

3.6-4.24(목)

오전 10:00 초등부실

매주 목, 8주 4만원

박준범, 김은선 목사

마더와이즈

3.4-4.29(토)

오전 10:00 초등부실

매주 화, 9주 5만원

이윤경 목사

해피맘스쿨

4.4-5.23(금)

오후 1:00 zoom

매주 금, 8주 회비없음

김은선 목사

결혼예비학교

6.8-6.22(주말)

오후 3:00 초등부실

매주 수일, 3주 4만원

이영희 전도사

자녀축복
새벽기도회

2/8, 3/15, 5/10,
6/14(토) 오전 5:20

대예배실

강요한 전도사

아름다운
부모학교

4.5-5.24(토)

오전 9:30 4층 대회의실

매주 토, 8주 3만원

배윤환 목사, 이광현 전도사

* 가정예배학교, 파더와이즈 : 하반기 실시

교회일정

- 3/5(수): 재의 수요일, 3교구 연합 수요기도회
3/7(금)~8(토): 상반기 거자씨 인도자 수련회
3/8(토): 어와나 1학기 오픈
3/9(주일): 사순절 첫째 주일
3/12(수): 1학기 거자씨 모임 개강, 인도자 교육
3/13(목): 양육클래스 개강
3/15(토): 세움학당 개강, 자녀축복 기도회
3/16(주일): 사순절 둘째 주일
3/19(수): 남남선교회 헌신예배

알립니다

1. 2025년 1학기 거자씨 인도자 수련회
기간: 3/7(금)~8(토)
장소: 곤지암 소망수양관
신청: 각 교구 목사에게 받은 구글 폼 링크
2. 2025년도 봄학기 양육클래스 개강 안내
기간: 3/13(목)~5/18(주일)
신청: 각 담당 목사에게 문자 또는 홈페이지 링크
3. 세움학당 6기 모집
기간: 3/15~6/7, 9/13~11/22(매주 토)
시간: 오후 6시~8시
문의 및 신청: 차승천 목사(010.7544.3945)

모집합니다

1. 주방봉사자(마무리팀)
시간: 주일 12시~2시
문의: 서정하 장로(010.9554.9715)
2. 영어예배 음향 스텝
시간: 주일 오전 10:20~오후 12:00
문의: 김지민 목사(010.8468.4478)
3. 주차안내부원
시간: 1부(2명), 2부(3명), 3부(3명)
문의: 유신식 안수집사(010.5219.3902)

함줄함울

발행인 : 김화수

편집인 : 임익수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www.pcltv.org

편 집 : 홍보출판부

<함줄함울>은 주님의교회가 발행하는 문서선교지입니다.
'함줄함울'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15) 말씀에 바탕을 두고, 교회
안팎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려는 뜻을 담은 이름입니다.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좋은 글, 소식, 간증, 기사제보를
기다립니다. 이메일 : pclhamletter@naver.com

496호 십자말풀이 정답자 엄혜숙 은퇴권사(5교구), 정현정 집사(5교구)

십자말풀이와 함줄함울 기사를 읽고 소감을 제출해주시는 분께 커피쿠폰을 드립니다. 십자말풀이는 함줄함울 지면에
답을 직접 쓴 사진을, 기사 소감은 아래한글이나 워드로 A4 1장 이상 분량으로 작성한 파일을 함줄함울 메일
(pclhamletter@naver.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때는 이름, 직분, 교구, 전화번호를 함께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